

□ 신입생들을 위한 좋은 영화 길라잡이

존재를 잃은 포스트모던, 작가주의로 풀어본다

김 명 석
(동아리 '그림자 놀이' 회장)

우리는 영화관에서 또는 TV에서 수많은 영화를 본 느낌 그대로를 간직한 채 대학에 들어온다. 그러나 대학이란 공간에서 향유하는 영상문화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 그것은 또다른 세계에 대한 경험의 욕구이고 그것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고급 영상문화에 대한 욕구로 이어진다. 그런데 영화를 만나는 순간 그 속에서 우리가 교감하는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담겨있는, 진정 창조적인 존재론적인 명제의 영화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이러한 방향잡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안을 제시한다. 그것은 작가주의 전통으로 회귀해 영화화를 시작하는 작업이다.

포스트 모던한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작가주의를 논한다는 것은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다. 점점 더 영화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위험한 시대에 영화를 구해내고 우리의 결으로 영화를 당겨오는 것은, 영화에서의 작가주의 전통을 불러들이는 작업이다. 작가주의의 전통은 한 작품속 장면장면의 미장센들, 움직임의 선들, 화면들의 구성이란 기표를 작가의 세계로 회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작가의 세계, 혹은 그의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 영화를 보고 새로운 집합, 새로운 영감, 새로운 개념, 새로운 모델을 이끌어낸 것과 마찬가지로 거장작가들로부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을 함께 나누어 갖기를 원한다.

□ 매니아를 위한 공간

여기 우리 시대의 거장으로 이야기되며 이미 성공작과 실패작의 의미가 없어진 시대의 대가 시네아티스트를 소개한다. 또한 작품은 비디오로 출시된 것을 기준으로 했으며 그렇지 않은 작품도 있다는 것을 밝힌다.

패러디의 미학
우디 알렌

시나리오와 연기와 연출을 겸하는 우디 알렌은 데뷔작 '돈을 갖고 튀어라 (69)' 이후 패러디 미학에 기반한 코미디들을 만들다가 자기 고백적 성찰로 주제 의식의 영화화를 시도한다. '돈을 갖고 튀어라'는 그다르를 빌어와 귀족적 농담을 늘어놓고 톨스토이의 고전으로부터 조지 오웰과 베스트 셀러 섹스 매뉴얼에 이르기까지 온갖 텍스트들을 패러디하며 영화를 만들었다.

컬트영화의 영웅
데이비드 린치

전세계 대중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불가해한 컬트 감독이다. 그는 핵가족의 단란함과 중산층의 안락한 저 밀바닥에서 아버지에게 사지절단당한 오디푸스이며, 정신병적인 정후로 가득찬 현대인들의 신경 노이로제를 간파한다. '이레이저 헤드(77)'는 암울한 미래사회를 표현한다. 이 영화로 데이비드 린치는 미드나이트 컬트영화의 새로운 영웅이 된다. 감각기관을 실현하는 지각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다양한 색깔의 무수한 점들이 하나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린치의 직감들은 파편처럼 떠돌다가 궁극적으로는 모

든 것을 아름답게 통합시키는 시작 언급술이다. '로스트 하이웨이(96)'는 간통과 '하드코어' 포르노 그래픽에 이르기까지 린치의 도덕적 딜레마와 이중성을 담은 영화로, 의식과 배신, 욕망과 살인이 의식의 무의식의 세계를 넘나들며 펼쳐진다. 이미지는 스스로 내려트브가 되며, 주인공은 모두 겨울의 이면을 통과하여 전혀 다른 인물이 되어 다른 공간에서 살아간다. 이 영화는 시간과 공간의 해체와 피비우스의 퍼처럼 이어지는 순환을 보여준다.

시대비판적 탐구
데이비드 크로덴버그

토론토 출생인 그는 호러와 SF테크놀로지의 독특한 결합으로 현대문명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의 작품 '크래쉬(96)'는 간느영화제에서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았으며, 자동차로 대포는 20세기 테크놀로지를 통해 인간의 극한 상황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섹슈얼리티와 테크놀로지의 변주곡이다. 자동차란 공간은 속도의 쾌감으로 달리게 하는 문명의 몸이며 인간의 몸이다. 이 속도가 절정으로 치달는 순간, 문명과 인간도 파장으로 치달는다.

흑백톤의 리얼리즘
마틴 스코세지

이태리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영화의 모든 요소들을 이리저리 해체하고, 조합한 다음 하나의 조화를 이끌어 낸다. 간느영화제에서 그랑프리상을 수상하여 국제적 명성을 얻었던

'택시 드라이버(76)'는 베트남전의 원죄의식에 관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윤리적 성찰의 시선 아래에서 불안해하며 패배적으로 변해가는 인간들을 정형화한다. 그는 이 흑백톤 가득한 영화에 주인공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리얼하게 실현하며 우리를 영화가 끝나는 시점까지 주저앉아 있게 만든다.

포스트모던의 반영
브라이언 드 팔마

뉴욕문화와 히치콕과 그다르에 대한 팔라주로, 패러디의 재창이자 관음증에 대한 일관된 주제로서의 영화작업을 했다. '칼리토(96)'는 브라이언 드 팔마의 패러디와 패스티시로 가득찬 기존 영화와의 결별이었다. 형광등 불빛 밑에서 죽어가는 칼리토의 인생에 대한 성찰은 브라이언 드 팔마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찰이었다. 드디어 팔마는 '미션 임파서블'로 명실공히 영화의 세기말, 그 중심부에 있음을 선포한다. 주인공을 쫓아 미로처럼 얽혀진 프라하 거리를 해매 다니는 카메라가 구성하는 카프카적 세계는 패러디와 패스티시로 얽혀진 이곳의 시공간에 대한 은유이다. 이 은유는 바로 포스트 모던한 지금 우리 삶에 대한 은유에 다를 바 없다.

웨스턴의 신화부정
클린트 이스트우드

50년대 유나버설의 B급영화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경력을 시작한 그는 71년 이후로 감독생활을 시작한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환영과도 같은 세

상에서 천천히 아주 느린 속도로 자신의 영토를 완성해내고 영화와 세계의 관계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으로 우리를 불러세우는 작가가 된다.

'용서받지 못한 자(92)'는 92년 아카데미 4개 부문을 수상했다. 이제 높고 지친 영혼은 젊은 날의 자신처럼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젊은이에게 '그건 모두 지나간 일이야'라고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신화가 되어버린 자신을 부정하고, 웨스턴이라는 장르의 시간을 유지해온 허구의 역사를 투명하게 드러내 보인다.

끔찍한 아름다움
스탠리 큐브릭

여러 장르를 오가며 일관된 작가의식을 찾을 수 있는 감독이다. 그는 영화를 만들 때마다 다른 주제, 다른 장르, 다른 스타일, 다른 테크놀로지 등으로 옮겨 갔으며, 큐브릭을 거치는 순간 각 장르는 환골탈태하였다. '2001: 우주 오딧세이(68)'는 인간의 이성을 이식한 컴퓨터에 의해 인간이 위기에 몰린다는 SF특시록이다. 이 작품에서 그는 전면투사 스크린 프로세스, 특수효과, 편집 등에 의한 우주공간에 대한 테크놀로지를, 사유는 스피버그, 루카스를 포함한 후대의 감독들에게 모델로 삼아졌다. 싸이코 호러 영화 '샤인'에서 그는 최초의 스테디캠을 사용하여 정말로 끔찍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었다. 이는 기계장치가 영화의 예술이라는 명제를 확인시킨 영화였다. 이 영화에서 악몽같은 상상세계에 침입한 큐브릭은 색채 표현주의를 실험하며 영화를 보는 이들을 극한적 감정으로 몰아 넣는다.

영화가 좋다면 이곳에 가보자

이제 막 영화계에 입문하는 학생들이 찾아가 볼만한 곳은 어디일까? 부담없이 영화감상도 하고 관련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곳. 그 중에서 귀에 익숙한 몇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은 익히 알고 있는 곳으로 동숭아트센터가 있다. 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출구로 나와 첫 번째 골목으로 올라가면 동숭아트센터가 있고 혜화 로터리 방면으로 50미터를 걸어 가면 'COCOS'라는 음식점 건물 지하 2층에는 시네마텍이 있다. 세네마텍과 대극장, 소극장으로 나뉘어져 영화는 물론 연극공연도 볼 수 있다. 세네마텍에서는 영화 시사회도 자주 열리며 지하 1층에 영화 포스터나 사진 등을 판매하는 '키노'는 종각역에 있는 코아아트홀의

'칸느'와 함께 웬만한 영화관련자료는 거의 모두 구입해 볼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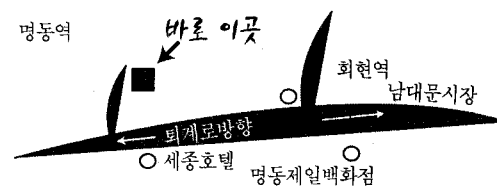
또 한 가지, 영화사사회에 참석하면 영화도 무료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끔 관련 포스터나 배우의 사진도 받을 수 있다. 사사회는 대부분 개봉관에서 하지만, 사사회만 주로 담당하는 곳도 있는데 시네하우스의 아메데우스 시사회나 신사역에 있는 NEO영화예술 연구원, 남산기술에 있는 영화감독협회 시사회 등 이 바로 그런 곳이다.

아메데우스 시사회는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에서 영동호빌방면으로 나와 567번 일반좌석이 나 83번, 239-1번 일반버스를 타고 영동소방서 앞에서 하차하면 금세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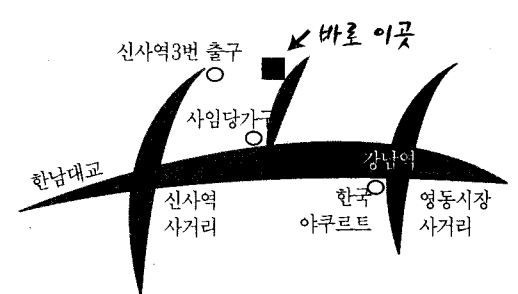
NEO영화예술 연구원은 신사역 3번출구로 나와 영동시장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보이며, 사전예약을 반드시 해야만 입장할 수 있다.

영화감독협회 시사회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남산방향으로 나와 서울역전쪽으로 약 15분 정도 걸으면 된다. 이외에도 시사회를 하는 장소들은 많지만, 아직 시사회 티켓을 파는 고정된 창구는 없다. 따라서 티켓 구입은 영화관련잡지나 PC통신 영화동호회 등을 이용해야 한다. 영화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부지런하기만 하면 티켓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김현종 기자)



▲ 영화감독협회 시사회 가는 길



▲ NEO영화예술 연구원 가는 길

1999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1999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1999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사람을 키워 인재로 거듭나게 할 비전있는 경희대학교

기본부터 제대로 다져가는 것,

경희의 무한한 가능성과 내실을 중시하는 경희의 힘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입니다

◆◆ 개교 50주년기념 교사자료 수집안내 ◆◆

경희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개교50주년, 1999년.

개교5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중앙박물관과 공동으로 경희창학 반세기의 자취를 모으고자, 경희학원 교사자료 모집운동을 펼칩니다.

사회의 밀가름이 되고 있는 경희공동체를 재확인하고 역동적인 시대에 새로운 경희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집대상자료 : 학교사(學校史) 전반에 관한 자료
- 사진, 간행물, 문서, 유물 등 경희학원관련 물품
- 기념품, 집기, 베품, 교복, 펜던트 등

○접수처 :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 중앙박물관
☎ 961-0931/2, 961-0141 FAX. 961-0906, 0140

○연락을 주시면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경희사랑저금통 기금 참여 안내 ◆◆

'경희사랑은 경희사랑 저금통에서부터'라는 경희사랑 실천운동의 하나로 시작된 경희사랑저금통 예금기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분산된 힘은 미약하나 결집된 힘은 위대합니다. 경희사랑저금통 기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희사랑의 첫걸음입니다.

- 목 적 : 학교 발전기금 조성(예교실 및 자축심 함양)
- 참 여 대 상 : 동문,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인
- 저금통 배부안내
 - 개인 1개 배부원칙, 개교5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배부 (본관모형으로 제작)
 - 동문일 경우 총동문회에서 배부받을 수 있으며, 재학생일 경우 개교 50주년 기념사업회를 방문하여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총동문회 ☎ 744-8855/6, 3672-0616 FAX. 3672-4994)

■ 기 탁 방 법
경희사랑저금통에 저축된 금액을 기하는 서울은행에 무통장 입금하신 후 개교 50주년기념사업회로 입금자 성명, 입금액을 연락해 주십시오.

무통장입금 (예금주: 경희대학교)
경희사랑저금통 기금 (서울은행) 17308-9505323

- 계좌번호는 경희사랑 저금통 일부에 있습니다.
- 경희사랑 저금통을 기탁 채우면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로 직접 방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 세제감면 : 출원자가 기탁한 기금에 대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8조의 2(상속재산 기금출원), 소득세법 제 66조의 3(7부류 특별공제) - 소득감면 규제법 제49조(법인소득 손금 또는 개인소득 손금)

경희대학교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Tel: 961-0931/2 Fax: 961-0906